



외교부

##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세종학당(원광학교) 방문 결과 및 지원 건의

---

수신 : 장관(공공외교총괄과장),

사본 : 문화교류협력과장, 유라시아과장, 재외동포과장, 서울시장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
(세종재단이사장, 해외홍보문화사업과장)

발신 : 주러시아대사

본직은 12.3(일) 12:30-15:00간 모스크바에 위치한 세종학당(원광학교)을 방문하여 △교직원 오찬 간담회, △한글 교실 및 문화 수업 참관, △학생들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통해 세종학당(원광학교) 운영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강생들과 교직원을 격려한 바,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.

### 1. 교직원 간담회

- 본직은 세종학당(원광학교)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의 모습과 한글과 한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을 보게 직접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면서, 전반적인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 문의함.
- 전종순 교장은 △시설 현황, △교육 과정, △수강생 현황 및 입학시험, △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△매년 개최되는 한민족 대축제 등 원광학교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아래 설명함.
  - (시설 현황) 원광학교 지하 1층, 지상 2층으로 강의실 9개, 도서실 1개, 문화체험실 2개 및 행정실 등으로 구성된 교사는 원광학교 소유이며, 토지는 모스크바市에서 임차 중임. 금년에는 세종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층 로비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
  - (교육 과정) 전체 8학기 4년 과정으로 각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, 학생들은 한글 학습 이외에도 문화교실에 참여 중
  - (수강생 현황)연 수강생이 900여명으로 모스크바 세종학당에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인들이 매년 1,500명 이상이 지원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학시험 제도를

## 운영 중

- (문화 교실) 매주 정기적으로 △사물놀이 반, △한국무용, △태권도, △한국노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외에도 매년 △김장 행사, △한국음식 체험 행사, △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 등을 개최
- (한국문화큰잔치) 금년 제24회를 맞이한 「한국문화큰잔치」는 초기에는 학교 운동회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였으나, 현재는 한국문화 체험, 다양한 공연 등을 포함하는 문화 큰 잔치로 운영 중이며, 참여하는 현지인들이 점점 늘어나 금년에는 7,000여 명이 참석하였음. 학교로서는 행사 준비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큰 실정
- 본직은 그동안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직원들의 노고와 애정을 높이 평가하고, 아래 부언함.
- 대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한글을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, 이는 한-러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인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함.
- 본직이 세종학당에 대한 정부지원 등 예산 현황에 대해 문의 한 바, 정 교장은 현재 연간 5,000미불을 지원 받고 있다면서 시설유지, 교직원 월급만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800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아래 부언 설명함.
- 특히 「한국문화큰잔치」의 경우 금년에는 대사관(문화원)으로부터 일부 예산지원을 받았지만, 수강생 이외에도 몇 천 명의 현지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관계로 예산이 항상 부족한 실정
- 본직은 「한국문화큰잔치」는 대규모의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는 것은 공공외교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만큼, 예산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본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함.
-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도 1,000여명의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한-러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본다면서 더 많은 양질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
- 정 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방러시 내년 「한국문화큰잔치」 행사에 서울시 소속 비보이 그룹을 파견키로 한 바 있다고 부언함.

## 2. 수강생들과의 대화

- 본직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수강생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, 특히 이곳에 모인 학생들의 열정을 매우 높게 평가함.

- 한-러 대통령은 금년 2회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좋은 친구가 되는 등 한-러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고위급 교류도 중요하지만 양 국민들과 교류와 친분이 쌓이는 것도 중요한 바, 여기에서 수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소중한 자산임.
  -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한국 대사로서 더욱 자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및 한국어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
  - 고급반 학생들은△한국어를 배운게 된 동기, △한국 방문 경험 △한국 방문 계획 등을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하며 주러 한국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함.
  - 본직은 한국어 전공자도 아니고 한국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수강생들이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하고,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라도 고급반 수강생들과 식사 등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, 참석자들은 대사와의 식사라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.
3. 상기 「한국문화큰찬지」 및 한국어 교육 예산 지원 관련, 당관에서 상세 계획 및 건의 사항을 종합 보고 예정인 바, 적극 검토 바람. 끝.

## 주러시아대사



수신자 공공외교총괄과장, 문화교류협력과장, 유라시아과장, 재외동포과장, 문화체육관광부장관(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), 서울특별시장

2등서기관 **이규현**    참서관겸총영사 **김세웅**    공사    **하태역**    대사    12/04 **우윤근**

협조자

시행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( 2017.12.04. ) 접수 국제교류담당관-12556 ( 2017.12.5. )  
 관-14679  
 우 131000 St. Plyushchikha 56, Building 1, Moscow, Russia / http://rus-moscow.mofa.go.kr  
 전화 (7-495)783-2727 /전송 (7-495)783-2777 / leekyuhyon@mofa.go.kr / 대시민공개